

『진단학보』 초기 양주동·이승녕의 논문을 통해 본 언어학 지식의 수용*

허인영**

초록 이 글에서는 『진단학보』 초기(1934-1941) 한국어학 논문, 특히 양주동과 이승녕의 저작에 나타난 참고문헌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한된 조건에서 외국의 언어학 지식이 한국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 한국어학 성립기의 주요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양주동은 한학 및 문학적 소양을 토대로 향가 연구에 집중하며, 주로 일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헌자료를 깊이 있게 활용하는 고증학적 연구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그의 참고문헌 역시 이러한 접근을 반영하여 일본의 한국어 연구 자료와 국내 고전 문헌에 무게를 두었으며, 서양 언어학 이론의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

반면, 이승녕은 경성제국대학 시절 고바야시 히데오의 지도를 받으며 서양 언어학 원전을 폭넓게 접하였다. 그의 논문들은 역사비교언어학, 구조주의 등 당시 서구의 주요 언어학 이론을 한국어학의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선구적인 시도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그의 참고문헌에는 서양 학자들의 원저 및 일본을 통해 소개된 이론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자료를 기반으로 이론적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적 지향을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진단학보』 초기의 한국어학 연구는 양주동으로 대표되는 고증학적 방식과 이승녕을 중심으로 한 서구 언어학 이론의 직접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주요 흐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연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체적으로 외래 학문을 수용하며 한국학의 토대를 다지고자 했던 노력을 보여주며, 근대 한국어학의 다층적인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이 논문은 2023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발전 양상과 그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진단학보, 디지털 아카이브, 양주동, 이승녕, 마에마 교사쿠, 오구라 신페이, 고바야시 히데오, 한국어학, 구조주의, 역사언어학

1. 머리말

이 글은 해방 이전(1934-1941) 『진단학보』(震檀學報)의 초기 한국어학 논문에 인용되어 있는 참고문헌을 정리하고 인용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당시 외국의 언어학 관련 지식이 한국으로 수용된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 이전 한반도의 학문장은 대단히 좁고도 빈약했다.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미개척지로 가득하여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학술장의 언어는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선교사를 비롯한 서양인 한국학자들은 *The Korean Repository* (1892-1899), *The Korea Review* (1901-1906),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00-2024) 등의 영문 학술지를 간행하였다. 일본인 학자들은 『청구학총』(靑丘學叢)과 같은 한국학 학술지나 『조선』(朝鮮) 등의 일본어 잡지,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대학교였던 경성제국대학의 기요(紀要), 논집(論集) 등에 일본어로 연구를 발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 학문의 영향하에 성장하여 근대적인 신식 학문을 접한 선학들은 한국어로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게 되었다.¹ 그 꿈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1934년에 창립된 진단학회였고, 그곳에서 간행된 『진단학보』였다.

1 최경봉(2016),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서울: 일조각, pp. 364-365. 류준필(2013),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서울: 소명출판, pp. 337-343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세기 초반 한국학이 ‘보편성의 독자적 구현’이라는 이념을 지향하면서 태동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진단학회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며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들은 대체로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하여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등 근대적 교육기관에서 서양의 학문을 체화한 이들이었다.² 진단학회의 주요 참여자들은 해방 이후 남북한의 한국학 분야에서 개척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어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³ 일본에서 언어학·국어학 분야의 핵심적인 지위를 얻게 된 이들이 (도쿄)제국대학 출신들이었던 것처럼,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도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 서울대학교에 자리잡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다.⁴ 해방 이후 학회 활동이 재개되면서 『진단학보』가 속간되었고, 현재까지도 문학·어학·사학·철학 등 한국학의 제 분야에서 학술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학보』가 태동기에 있던 1934-1941년에 실린 한국어학 논문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어떤 글이 얼마나, 어떤 맥락에서 인용되었으며, 그것이 근대 한국어학 성립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이승녕과 같은 초창기 연구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유럽의 구조언어학 이론을 받아들여 본격적 국어 음운사가

-
- 2 홍종욱·장문석·류준필(2025), 「한국 근대문헌 디지털 아카이브의 설계: 『진단학보』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110(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85-88에서 검토한바, 초기 『진단학보』(1934-1941) 14권에 실린 글 84편의 저자 37명 중 대학을 나온 이가 32명인데, 그중 경성제국대학 출신이 14명, 와세다대학 출신이 10명이다. 『진단학보』 초기 적극적 참여자 86%가 대학 출신, 그중에서도 75%가 한국과 일본의 특정 대학 출신인 것이다. 이는 대학 자체가 많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진단학회의 연구 성향에는 구성원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 3 『진단학보』 초기의 유이(唯二)한 국어학 논문 투고자인 양주동과 이승녕은 각각 와세다대학과 경성제국대학 출신이었다.
 - 4 한반도의 상황이 일본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전 식민지 조선의 한국어 학계는 주시경과 그 제자인 김두봉·최현배를 비롯한 한글학회 중심의 연구자들과 이회승·이승녕 등 경성제국대학 중심의 연구자들이 양분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이들이 모두 대학에 자리잡게 되었지만, 관학(官學) 출신과 사학(私學) 출신 간의 대립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시작되었다거나,⁵ 역사비교언어학과 프랑스 언어학 이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수용했다고 하는⁶ 단편적인 언급이 있을 따름이다. 이들 논문에서도 참고문헌, 특히 선행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⁷ 연구사 정리가 아니라 근대의 한국어학사를 다루는 논문에서도 개별 사실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⁸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양주동과 이승녕 두 사람이 쓴 『진단학보』 초기 한국어학 논문에 실린 참고문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참고문헌을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로 나누어 양적인 차이를 정리하고, 다음으로는 인용된 선행연구에 대해 그 맥락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언어학 지식의 수용 양상을 두 갈래로 나누어 고찰해 본다.

-
- 5 정승철(2004), 「음운사 연구에서의 언어 변화 이론의 수용과 전개: ‘ㄹ’의 음운사 연구를 중심으로」, 『國語學』 43, 국어학회, p. 408.
 - 6 崔明玉(1988), 「歐美 言語學 理論의 受容과 國語音韻論 研究: 構造言語學理論과 生成音韻論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pp. 241-242.
 - 7 崔明玉(1988), p. 242, 각주 7은 李崇寧(1940)에서 브루크만(K. Brugmann), 파울(H. Paul), 그라몽(M. Grammont), 방드리에스(J. Vendryes), 메이예(A. Meillet) 등이 인용되었음을 언급하였으나, (분량상 문제였겠지만) 어떤 논자가 어떤 맥락에서 인용되었는지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 8 예컨대 서민정(2016), 「한국어학에서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의 흔적과 영향 관계」, 『한국언어문학』 99, 한국언어문학회, p. 39; 서민정(2022), 「20C 전반기, 한국어학 학술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이승녕, 김수경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68, 우리말학회, pp. 166-167에서는 1920년대 후반 경성제국대학에서 국어학 강좌를 담당한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 1900-1967)가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 1872-1967)의 제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도키에다가 도쿄제국대학 국문과에 재학 중이던 1920년대 전반기에 가나자와는 고쿠가쿠인대학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도키에다가 가나자와의 제자일 수는 없다. 도키에다의 재학 당시 국어학 강좌의 교수는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 1867-1937), 조수는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1882-1945)였고, 도키에다 본인도 이들의 지도와 권유로 국어학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時枝誠記(2017), 『國語學史』, 東京: 岩波書店, p. 11.

2. 『진단학보』 초기 한국어학 논문

진단학회(震檀學會)는 1934년 5월 7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연구를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당시 한국 학계의 분위기는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일본과 일본인이 주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성과 또한 일본어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를 개척·발전시키기 위해 진단학회가 창립되었다.⁹ 『진단학보』는 1934년 11월에 제1권을 발간하고 1941년 6월에 제14권을 끝으로 발간이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 발간이 재개되어 지금에 이른다. 안예리에 따르면 1934년부터 1984년까지 『진단학보』(제1권-제58권)에 실린 한국어학(언어학) 논문의 저자는 24명이었고,¹⁰ 각 호별 한국어학(언어학) 논문의 평균 비율은 22.3%였다.¹¹

이 글에서 다루는 『진단학보』 초기 한국어학 논문은 일제 말기 활동 중단을 이전의 진단학회에서 간행한 『진단학보』, 즉 1934년부터 1941년까지 간행된 총 14권에 실려 있는 한국어학 논문을 가리킨다. 해방 이전(1934-1941)에 발행된 『진단학보』에 실린 글 가운데 ‘논술’로 분류된 것은 총 77편이다.¹² 이 가운데 역사·철학 등을 제외하고 한국어문학 분야에 해당하는 글은 14편이다. 14편 중에는 한국어학이 4편, 한국문학이 10편인데, 한국어학 4편 가

9 “近來 朝鮮(文化)을 研究하는 傾向과 誠熱이 날로 높아가는 狀態에 있는 것은 참으로 慶賀에 견디지 못하는 바이나, 그런 傾向과 誠熱이 朝鮮人 自體에서보다 朝鮮人 以外의 人士間에 더 많고 큼을 發見하게 된다. 그 까닭은 우리 스스로 冷靜히 考어볼 必要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研究까지 남에게 맡겨 맡기어, 오직 그들의 努力과 成果만을 기다리고 힘입기를 바라는 者이 아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貧弱하고 研究가 拙劣할지라도, 自奮自進하야 또 서로 協力하야, 朝鮮 文化를 關拓 發展 向上시키지 않으면 안 될 義務와 使命을 가진 것이다.” 震檀學會(1931), 「震檀學會創立」, 『震檀學報』1, 震檀學會, p. 223.

10 이 표에는 양주동의 「鄉歌注釋散稿」가 국문학 논문으로 분류되었는지 빠져 있지만, 이 논문은 부제에 ‘上代語法’이라는 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으로도 어엿한 한국어학(한국어사) 논문이다.

11 安禮剛(2022), 「20세기 국어학과 진단학회」, 『震檀學報』139, 震檀學會, pp. 125-127.

12 해방 이전 『진단학보』의 발행연월·쪽수·편성 등에 대해서는 홍종욱·장문석·류준필(2025), p. 89의 <표 3>을 참조.

운데 3편을 이승녕, 1편을 양주동이 썼고 한국문학 10편 가운데 6편은 조운제, 4편은 이병기가 썼다. 한국어학 논문 4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梁柱東(1939), 「鄉歌注釋散稿: 上代語法에 關한 若干의 基本的 見解」, 『震檀學報』 10, 震檀學會, 110-133. (24쪽)
- 李崇寧(1935), 「魚名雜攷」, 『震檀學報』 2, 震檀學會, 134-149. (16쪽)
- 李崇寧(1939), 「朝鮮語 異化作用에 對하여」, 『震檀學報』 11, 震檀學會, 1-42. (42쪽)
- 李崇寧(1940), 「ㄱ、音攷」, 『震檀學報』 12, 震檀學會, 1-106. (106쪽)

한국어문학계뿐만 아니라 한국학 전체의 연구자가 양적으로 지극히 부족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저자의 편중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학의 경우 조선어학회의 『한글』(1932-현재), 조선어학연구회의 『정음』(正音)(1934-1941) 등 당시에든 한국어로 된 논문을 실을 수 있는 다른 학술지가 존재했다. 같은 시기 『한글』지의 필자들을 살펴보면 이승녕을 제외하고는 『진단학보』와 중복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진단학보』와 『한글』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인적 구성과 학술적 지향이 어느 정도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양주동이 그의 첫 한국어문학 논문인 「향가의 해독 특히 원왕생가에

13 당시의 한국어학계를 단순히 양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한글』, 『正音』 등에는 주로 공식적인 문법이나 음성학 연구가 발표되는 반면 『진단학보』에는 주로 통시적 연구가 발표되었고 언어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安禮剛(2022), pp. 135-143] 연구 경향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량의 문제도 있었다. 당시 『한글』에 게재되는 논문은 10쪽이 넘지 않는 단편들이 대부분이어서, 본격적인 학술논문을 실기는 어려웠다. 李崇寧(1983), 「나의 研究生活」, 『나의 걸어온 길: 學術院 元老會員 回顧錄』, 대한민국학술원, p. 464에서도 “『한글』誌는 小冊子로서 正式 論文을 실기에는 不適當한 것이었음을 그 面數의 配當에서 짐작된다.”라고 한 바 있다. 이승녕은 1940년부터 1947년 사이에 『한글』에 짧은 글을 여러 편 투고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거의 투고하지 않았다.

대하여」(鄉歌の解讀 特に願往生歌に就いて)를 발표한 곳은 일본어 학술지인 『청구학총』이었다. 이후 『진단학보』에 「향가주석산고」(鄉歌注釋散稿)를 발표하기 전까지 논문을 실은 지면은 『조선일보』(朝鮮日報), 『조광』(朝光) 등의 신문·잡지 외에는 『정음』(正音)이 유일했다. 이에 대해 양주동 본인이 언급한 바는 찾을 수 없었으나, 조선어학회와 『한글』에 대해 그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다.¹⁴

한편 이승녕은 선배인 이희승과 동기인 방중현이 『한글』에 적극적으로 논문을 싣고 있었음에도 스스로는 「음위전환(音韻轉位) 현상(現象)에 대(對)하여」¹⁵ 정도만을 실었을 뿐이다. 해방 이전에 그는 『진단학보』에 더 애정을 쏟았는데, 여기에는 『진단학보』가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 출신들이 간행하던 잡지인 『조선어문학회보』(1931-1933)와 『조선어문』(1933)의 후신이라는 생각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¹⁶ 이승녕의 연보를 쓰면서 그의 제자인 이병근은 이승녕과 『진단학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¹⁷

1935. 9. 이해 4월에 본격적인 논문인 〈魚名雜攷〉를 《震檀學報》제2집에 게재한 뒤, 12일에 震檀學會(1934년 5월 7일에 창립)에 영문학에서 국문학으로 전공을 바꾼 梁柱東 등과 함께 입회(通常會員). 이후 진단학회의 창립자인 사학자 李丙燾와 평생토록 함께 하면서 논문 발표의 주요 논문집을 《震檀學報》로 삼았고 학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음. 국어국문학 전공 제자들의 무게 있는 논

14 “‘正音’에는 세 번을 투고했으면서도 ‘한글’誌에는 한 번도 싣지 않았으니, 선생이 직접 밝힌 일은 없으나, 대체로 朴勝彬의 正音派에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추정된다. 이는 또한 《朝鮮古歌研究》의 綴字法이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金英培(1984), 「國語學史上의 梁柱東」, 『論文集』 23, 동국대학교, p. 4.

15 李崇寧(1939a), 「音韻轉位 現象에 對하여」, 『한글』 7-4, 한글학회, pp. 1-6.

16 安禮剛(2022), pp. 135-143.

17 심악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 편(2011), 『心岳李崇寧全集 15: 삶과 사상』, 파주: 한국학술정보, p. 528.

문도 적극 추천하여 게재하게 하였음. [...]

1939. 12. 震檀學會 ‘위원(편집)’에 피선되어 드디어 학계로부터 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믿고 무척 기뻐했음. [...]

3. 『진단학보』 초기 양주동·이승녕 논문의 참고문헌

본 절에서 다루는 『진단학보』 초기 양주동·이승녕 논문의 참고문헌은 일차적으로 현재 구축 중인 『진단학보』 아카이브¹⁸에서¹⁹ 추출한 것이다.¹⁹ 이 글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진단학보』 아카이브에 현재까지 입력된 텍스트에서 ‘인물’, ‘서적’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해당 검색 결과를 원문과 대조하여 사용하였다.

3.1. 참고문헌의 양적 분석

이 절에서는 『진단학보』 초기 한국어학 논문, 즉 양주동이 쓴 1편과 이승녕이 쓴 4편을 대상으로 하여 각 논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로 나누어 논저의 편수와 특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²⁰

18 홍종욱·장문석·류준필(2025); <https://dh.aks.ac.kr/~nkh/wiki/index.php/분류:JDArticle>

19 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해방 이전에 간행된 『진단학보』를 전산 입력하여 구축한 것으로, 원문 텍스트 제공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던 기존의 근대 문헌 아카이브와 달리 데이터의 의미 관계를 설계에 반영한 시맨틱(semantic)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점이 특징이다. 『진단학보』 아카이브의 데이터 모델에는 ‘인물, 단체, 기관, 공간, 사건, 서적’ 등이 포함되고, 이를 통해 온톨로지(ontology)를 설계할 수 있다. 실제 작업에서는 위키 플랫폼 가운데 미디어위키(MediaWiki)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하였고, XML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다.

20 문헌자료는 논문의 용례로서 인용된 과거 한국어 문헌을 가리키고, 선행연구는 개별 및 일반언어학 주제와 관련된 논문과 저서를 가리킨다. 문헌자료는 가나다순, 선행연구는 국내와 국외(일본·서양)로 나누어 생물년순으로 배열하였다.

3.1.1. 양주동, 「향가주석산고」(鄉歌注釋散稿)

① 문헌자료(13종)

『금강경언해』, 『두시언해』, 『법화경언해』, 『삼국사기』, 『삼국유사』(해성가, 우적가), 『선종영가집언해』, 『속사미인곡』, 『아미타경언해』, 『악장가사』, 『악학궤범』, 『월인석보』, 『육조범보단경언해』, 『훈몽자회』

② 국외 선행연구(3인 6종)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 『韓語通』(1909), 『龍歌故語箋』(1924), 『雞林類事麗言攷』(1925), 「處容歌解讀」(1929)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沢庄三郎, 1872-1967): 「新羅の片假字」(1932)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 『鄉歌及び吏讀の研究』(1929)

3.1.2. 이승녕, 「어명잡고」(魚名雜攷)

① 문헌자료(13종)

『강릉읍지』, 『고려사』, 『계림유사』, 『동국여지승람』, 『동언고략』, 『사성통해』, 『삼국사기』, 『삼국유사』, 『아언각비』, 『용비어천가』, 『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 『한영자전』, 『화어유초』

② 국외 선행연구(2인 2종)

Richard Loewe(1863-1931), 『젤만語學』(*Germanische Sprachwissenschaft*, 1901)

Ernst Kieckers(1882-1938), 『世界の言語系統』(*Die Sprachstämme der Erde*, 1931)

3.1.3. 이승녕, 「조선어(朝鮮語) 이화작용(異化作用)에 대(對)하여」

① 문헌자료(15종)

『금강경언해』, 『내훈』(성화판), 『두시언해』, 『박통사언해』, 『법화경언해』, 『병학지남』, 『사성통해』, 『삼강행실도』, 『역어유해』, 『오륜행실도』, 『용비어천가』, 『월인석보』, 『천자문』(전주 안심사판), 『화어유초』, 『훈몽자회』

② 국내 선행연구(6인 3종)

신경준(申景濬, 1712-1781), 어윤적(魚允迪, 1868-1935), 주시경(周時經, 1876-1914)²¹

박승빈(朴勝彬, 1880-1943), 『朝鮮語講義要旨』(1931)

권덕규(權惠奎, 1890-1950), 『朝鮮語文經緯』(1923)

이승녕, 「Umlaut現象을 통하여 본 母音 ‘ㆍ’의 音價攷」, 『新興』 8.

③ 국외 선행연구(일본 5인 7종, 서양 11인 12종)

신무라 이즈루(新村出, 1876-1967), 『言語學概論』(1935)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 『國語及朝鮮語發音概說』(1923), 『南部朝鮮의 方言』(1924)²², 「咸鏡南道及び黃海道の方言」(1930)

킨다이치 교스케(金田一京助, 1882-1971), 『國語音韻論』(1932)

기쿠자와 스에오(菊沢季生, 1900-1985), 『國語音韻論』(1935)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1903-1978), 『言語學方法論考』(1935)

K. W. L. Heyse(1797-1855), 『言語學의 體系』(*System der Sprachwissenschaft*) (1856)²³

Hermann Paul(1846-1921), 『言語史原理』(*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1880)

Christian Rogge(1848-1933), *Der Notstand der heutigen Sprachwissenschaft*(1929)

Karl Brugmann(1849-1919), 『音韻的 異化作用의 本質』(*Das Wesen der lautliche Dissimilation*)(1909)

Ferdinand de Saussure(1857-1913), 『言語學原論』(*Cours de linguistique*)

21 이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언급되어 있고 어떤 논저를 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인용된 맥락이 「ㆍ音攷」의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임을 고려하면 각각 『訓民正音圖解』(신경준), 『朝鮮文字母講話』(어윤적), 『朝鮮語文典音學』(주시경)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22 논문에는 「南方朝鮮의 方言」으로 되어 있다.

23 논문에는 「Sysem der Sprachwiss」로 잘못되어 있다.

générale』(1916)[고바야시 히데오 옮김, 1928]

Otto Jespersen(1860-1943), 『音韻教科書』(*Lehrbuch der phonetic*)(1904)²⁴

Antoine Meillet(1866-1936), 『史的言語學に於ける比較の方法』(*La méthode comparative en linguistique historique*』(1925)[이즈이 히사노스케(泉井久之助) 옮김, 1934]

Maurice Grammont(1866-1946), 『異化作用』(*La dissimilation consonantique dans les langues indo-européennes et dans les langues romanes*)(1895), 『음운학개설』(*Traité de phonétique*)(1933)

Henri Delacroix(1873-1937), 『言語와 思想』(*Le Langage et la Pensée*)(1924)

Joseph Vendryes(1875-1960), 『言語』(*Le Langage*)(1921), 「音韻法則の省察」(*Réflexions sur les lois phonétiques*』(1902)[고바야시 히데오 옮김, 1933]

Oskar Wolf(?-?), 『言語와 聽取』(*Sprache und Ohr*)(1871)

3.1.4. 이승녕, 「·'음고」(「·」音攷)

① 문헌자료(19종)

『계림유사』, 『금강경언해』, 『내훈』(성화판), 『능엄경언해』, 『두시언해』, 『박통사신석언해』, 『박통사언해』, 『법화경언해』, 『불정심다라니경언해』, 『사성통해』, 『삼강행실도언해』, 『역어유해』, 『용비어천가』, 『원각경언해』, 『월인석보』, 『화어유초』, 『화음계몽언해』, 『훈몽자회』, 『훈민정음』

② 국내 선행연구(14인 14종)

신경준(申景濬, 1712-1781), 『訓民正音圖解』(1750)

홍양호(洪良浩, 1724-1802), 『經世正韻圖說序』

황윤석(黃胤錫, 1729-1791), 『頤齋遺稿』(1829)

유희(柳僖, 1773-1837), 『諺文志』(1824)

24 인용 면수와 내용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 이승녕이 본 것은 초판(1904)이 아니라 제2판(1913)이나 제3판(1920)으로 보인다.

- 권정선(權貞善, 1848-?), 『正音宗訓』(1906)
- 어윤적(魚允迪, 1868-1935), 「朝鮮文字母講話」
- 이능화(李能和, 1869-1943), 『朝鮮佛教通史』(1918)
- 주시경(周時經, 1876-1914), 『朝鮮語文典音學』(1908)
- 박승빈(朴勝彬, 1880-1943), 『朝鮮語學講義要旨』(1931)
- 권덕규(權惠奎, 1890-1950), 『朝鮮語文經緯』(1923)
- 김윤경(金允經, 1894-1969), 『朝鮮語文字及語學史』(1938)
- 정렬모(鄭烈模, ?-?), 「聲音學上으로 본 正音」, 『한글』 창간호(1927)
- 이승녕, 「音韻轉位 現象에 對하여」, 『한글』 7-4(1939)
- 이익습(李益習), *The Alphabet(Panchul)*(1892)

③ 국외 선행연구(일본 2인 7종, 서양 14인 14종)

-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 『韓語通』(1909)
-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4), 『朝鮮語學史』(1920), 『國語及朝鮮語發音概説』(1923), 『南部朝鮮の方言』(1924), 『郷歌及び吏讀の研究』(1929), 「咸鏡南道及び黃海道の方言」(1930), 「朝鮮語母音の記號表記法に就いて」(1931)
- Wilhelm Wahlenberg(1819-?), *Ueber Einwirkung der Vokale auf Vokale*(1855)²⁵
- William Whitney(1827-1894), *The life and growth of language: an outline of linguistic science*(1875)
- George Gabelentz(1840-1893), *Zur Beurteilung des Koreanische Schrift und Lautwesen*
- Wilhelm Scherer(1841-1886), 『獨逸語史』(*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1868)
- Henry Sweet(1845-1912), 『言語史』(*The History of Language*)(1900)

25 논문에는 'Vokale'이 'Vokal'로 잘못되어 있다.

Hermann Paul(1846-1921), 『言語史原理』²⁶

Eduard Sievers(1850-1932), *Grundzüge der Phonetik zur Einführung in das Studium der Lautlehr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893)

W. M. Baird(1862-1931), 「Romanization of Korean Sounds」(1895)

Friedrich Müller(1863-1930), *Grundriss der Sprachwissenschaft* (1882)

Homer Hulbert(1863-1949), 「Romanization again」(1895)

Charles Alévêque(1865-1925), 『법한주던』(*Petit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1901)²⁷

Maurice Courant(1865-1935), 『朝鮮文庫』(*Bibliographie coréenne*)(1894-1901)

Wilhelm Horn(1876-1952), *Sprachkörper und Sprachfunktion*(1921)

H. H. Underwood(1890-1951), 『鮮英文法』(*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1914)

3.1.5. 인용된 참고문헌의 양적 차이

① 문헌자료

인용된 문헌자료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향가주석산고」와 「어명잡고」가 13종으로 비슷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승녕 논문의 문헌자료는 점점 늘어난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학문적 배경의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주동은 숭실전문학교 재직 시절에 도서관에서 오구라 신편이의 『향가 및 이두의 연구』(鄉歌及び吏讀の研究)를 접하고서 큰 충격을 받고 향가 해독에 뜻을 세우게 된다. 애초에 영문학 전공이었던 데다, 향가의 해독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매달리고 있었던 양주동은 연구에 필요한 언해 자료를 비롯한 귀중서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기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²⁶ 인용 편수와 내용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 이승녕이 본 것은 초판이 아니라 제5판(1920)으로 보인다.

²⁷ 논문에는 ‘法韓字典’으로 되어 있다.

해결하였다. 1934년경 숭실전문학교의 마포삼열기념관(馬布三悅紀念館)²⁸에서 전시회를 연다는 구실로 당대의 장서가인 최남선·이희승·방중현 등의 장서를 빌렸던 것이다.

하루는 无涯형이 [...] 國語·國文學 관계 도서를 平壤에서 전시할 계획이니, 鄙藏 圖書를 빌려달라는 所請이었다. [...] 그리하여 전시장에 내어 놓음직한 書籍(주로 古典의 諺解書)을 전부 추려서 제공한 일이 있었다. (중략) 平壤에서는 國語·國文學 관계의 書籍이 많을 수가 없던 시대였다. 이 展示會를 機會로 삼아 당시 출판되었던 書籍을 전격적으로 섭렵하여 小倉씨의 力著를 批評할 수 있는 底力을 短時日에 길렀던 것이다.²⁹

나도 몇 권의 冊을 展示用으로 내어 놓았다. [...] 전시기간은 4월 18일에서 3일간이었다. [...] 나중에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양 씨는 崇專 학생을 시켜 文獻에서 추릴 곳을 指示, 傳寫케 하고 있다는 얘기가. 즉 그 전시한 문헌을 梁 씨가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 처음부터 기도한 것이란다. / 나는 놀랐다. 내가 梁 씨 덕을 가보아도 책이라고는 귀중본《杜詩諺解》뿐이고 그 외에는 보잘 것이 없었다.³⁰

양주동의 첫 향가 논문인 「향가의 해독 특히 원왕생가에 대하여」는 1935년 1월에 탈고된 것이다. 결국 1934년 4월의 고서 전시회 이후 만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고문헌에서 예를 뽑아서 베끼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문을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연구 환경이 열악했을 당시에 전광석화처럼 연구를 진행한 그의 열정과 실행력은 놀랄 만하다.

28 모팻(Samuel Austin Moffett, 한국명 馬布三悅, 1864-1939)은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이자 교육자로, 1890년 조선에 와서 1936년까지 선교와 교육에 종사하였다. 주로 평양에서 활동하면서 숭실전문학교를 창설하는 데에도 중심 역할을 하였다.

29 无涯先生古稀紀念論叢刊行會(1973), 『梁柱東博士 프로필』, 서울: 探求堂, pp. 57-58.

30 심악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 편(2011), pp. 257-258.

반면 이승녕은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최고 수준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자료를 접할 수 있었으며, 이희승과 방중현 등 고문헌을 수집하는 동문들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 그는 평양사범학교에 내려가 있으면서도 틈날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동료 연구자들을 만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³¹ 이러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승녕이 이용할 수 있었던 문헌자료의 수가 양주동보다 앞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³²

② 선행연구

양주동과 이승녕 두 사람의 연구 분야가 고대한국어(항가)와 어휘사·방언사 및 음운사로 워낙 다르니만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양주동의 글에는 일본인 학자 3명의 논저만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적해야 할 듯하다. 양주동이 극복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구라 신페이의 『항가 및 이두의 연구』였는데, 오구라는 항가를 해독할 때 서양의 언어학 논저를 별로 인용하지 않았다. 그의 항가에 대한 주해는 거의 중세의 한글 문헌이나 차자표기 자료를 예로 들어 해독을 뒷받침하는 고증학적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양주동 스스로도 서양의 언어학 이론을 습득하여 항가 해독에 적용해야겠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명의 일본인 학자(마에마 교사쿠, 가나자와 쇼자부로, 오구라 신페이) 중에서는 마에마의 것이 4편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학계에서 한국어사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책이 그의 『한어통』(韓語通)과 『용가고어전』(龍歌故語箋), 『계림유사여언고』(雞林類事麗言攷) 정도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다.

31 “나는 外國語의 實力 低下를 염려하고 獨逸語 原書의 번역과 古文獻에서의 資料整理, 그리고 平安道 地方의 方言의 조사와 研究, 그리고 可能한 대로 論文을 쓰기로 나선 것이다. 一種의 最後發惡的 工夫였다. 그리고 放學은 물론이지만 連休만 되어도 서울로 와서 새 情報를 얻고 冊도 사간다.” 李崇寧(1983), p. 457.

32 양주동 또한 이후에 다양한 문헌을 섭렵하여 『조선고가연구』(朝鮮古歌研究)에서는 한글 관계 81종, 이두 관계 53종, 역사서·지리지 25종, 기타 문집 28종, 중국 문헌 63종, 불서(佛書) 21종, 일본 문헌 8종 등 총 279종의 책을 인용하기에 이른다. 金英培(1984), p. 2.

한편 이송녕의 선행연구 인용은 「어명잡고」에서 서양인의 저작 2종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조선어 이화작용에 대하여」에서는 국내 6인 3종, 국외 16인 19종(일본 5인 7종, 서양 11인 12종)으로 크게 늘어났고, 「‘ㆍ’음고」에서는 국내 14인 14종, 국외 16인 21종(일본 2인 7종, 서양 14인 14종)으로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조선어 이화작용에 대하여」에서는 국외 논저의 인용이 다수인 반면, 「‘ㆍ’음고」에서는 국내 논저(전해)의 인용이 크게 늘었다. 이는 연구대상의 특징상 이화작용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거의 다뤄진 바가 없는 반면, ‘ㆍ’에 대해서는 전근대 시기부터 국내 학자들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논문의 분량 또한 16쪽, 42쪽, 106쪽으로 2배 이상씩 늘어났다.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한국어학자 중에서도 이송녕의 논문은 유독 긴 것이 많은데, 논중에 필요한 문헌자료 용례의 제시가 많고, 설명을 위한 선행연구 인용도 늘어나면서 자연히 분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2. 선행연구 인용의 내용적 분석

두 사람의 논문에 인용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의 한국어학 연구가 대체로 그러하듯이 인용이 본문에 되어 있기도 하고 주석에 되어 있기도 하여 형식이 일관되지 않다. 인용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 또한 완전하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히 언제 어디서 간행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가면서 저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선행연구를 인용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2.1. 양주동, 「향가주석산고」

이 글은 양주동이 자신의 신라 향가 연구의 집대성인 『조선고가연구』(朝鮮古歌研究)(1942) 이전에 발표한 향가의 문법에 대한 논문이다. 그는 「향가의 해독 특히 원왕생가에 대하여」를 발표한 이래, 1940년까지 총 22편의

글을 잡지와 신문에 발표하였다.³³ 그중에는 한 편의 글을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20회까지 신문에 연재한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한 것이다.

영문학을 전공하고 시인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양주동은 자신의 시적 감각과 함께 한문 및 중세·근세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향가를 분석하여 일본 학자들의 오류를 예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향가 연구를 시작한 계기가 오구라 신페이의 『향가 및 이두의 연구』를 극복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인용된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은 언어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향가 원문 텍스트에 즉(卽)하여 용자(用字) 하나하나를 해독하여 단 하나의 표적인 『향가 및 이두의 연구』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시종 증석위주학(證釋爲主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³⁴

이 글에 달린 33개의 주석에는 총 29번의 선행연구 인용이 보인다. 양주동 본인의 글(「鄉歌의 解讀 特に 願往生歌に就いて」)이 2번, 가나자와 쇼자부로 의 글(「新羅の片假字」)이 2번, 오구라 신페이의 글(『鄉歌及び吏讀の研究』)이 9번, 마에마 교사쿠의 글이 16번이다. 의외의 사실은 양주동이 가장 많이 인용한 학자가 『조선고가연구』에서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오구라 신페이가 아니라 마에마 교사쿠라는 점이다. 본문에서 4번이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한 학자 또한 마에마뿐이었다.³⁵ 양주동은 마에마의 글을 『한어통』, 『용가고

33 고영근(2003), 「양주동의 국어학 연구」,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pp. 35-36.

34 黃湜江(1991), 「無涯 梁柱東과 『朝鮮古歌研究』」,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양주동 연구』, 서울: 민음사, p. 272. 이는 그가 『조선고가연구』(朝鮮古歌研究)의 원칭(原稱)을 ‘사뇌가전주’(詞腦歌箋注)라고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梁柱東(1942), 凡例, p. 1]. ‘전주’(箋注)는 글의 뜻을 주석한 것을 가리키는 예스러운 표현인데, 이는 그의 호고癖(好古癖)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신라 및 고려 향가에 대해 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文學的 價值, 그 鑑賞, 乃至 文化史的 考察”[梁柱東(1942), 序, p. 3]에는 이르지 못한 고증학적 주석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기도 하다.

35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오구라와 달리 마에마는 일본에 돌아가 재야 연구자로 남아 있었다.

어전』, 『계림유사여언고』, 「처용가해독」(處容歌解讀) 등 4편이나 인용하였다. 또한 마에마의 인용은 그를 비판하는 맥락도 있지만, 기존 학설로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인용한 것이 많다. 마에마의 견해를 오구라가 받아들인 것도 많은 만큼 오구라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마에마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마에마의 견해를 통설로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흔히 한국어 학습서로 알려진 『한어통』(1909)이 인용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 『한어통』에는 당시의 한국어 학습서에는 흔치 않은 고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³⁶ 한국어사와 관련된 기술이 산재해 있어서³⁷ 당시에 한국어사 연구자들에게도 널리 읽혔음을 알 수 있다. 『용가고어전』은 최초의 본격적인 한국어사 연구서로 여겨지는데,³⁸ 양주동 역시 (중세어 문헌을 통한 자체적인 습득 외에) 『용가고어전』을 통하여 중세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2. 이승녕, 「어명잡고」

이 글은 제목의 ‘잡고’(雜攷)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고기의 명칭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을 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질의 논문은 아니다. 이승녕 스스로도 본격적인 학술지 논문으로는 첫 번째로 여

36 李賢熙(1993), 「前間恭作(1924), 『龍歌故語箋』, 『周時經學報』 11, 周時經研究所, p. 108, 각주 1.

37 허인영(2024), 「『韓語通』 본문에 서술된 한국어사 관련 주제에 대하여」, 『어문논집』 101, 민족어문학회, pp. 259-292.

38 河野六郎(1942), 「前間先生と朝鮮語學」, 『書物同好會會報』 15, 書物同好會, pp. 9-11; 河野六郎(1974), 「故前間恭作先生の朝鮮語研究」,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 『前間恭著作集 下卷』, 京都: 京都大學國文學會, pp. 5-8; 李賢熙(1993); 김태우(2021), 「20세기 전반기에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중세한국어 연구: 『龍歌故語箋』과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197-232. “방인의 龍歌에 對한 研究書도 수삼 種類나 世上에 나왔으나, 그래도 오히려 國文學徒들의 必讀의 良書의 하나인 건 多言을 不要한다.” 東岳研究會(1960), 『龍歌故語箋』 서문.

기는 글이며,³⁹ 후대에는 한국어학 성립기의 연구이면서 동시에 어휘론과 방언학이라는 언어학의 두 가지 하위분야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⁴⁰

이 글에는 뢰베(Richard Loewe)의 『게르만어학』(*Germanische Sprachwissenschaft*)과 키커스(Kieckers)의 『세계의 언어 계통』(*Die Sprachstämme der Erde*)이 인용되어 있다.⁴¹ 전자는 게르만어파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후자는 우랄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의 규칙적인 변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단순한 지식의 자랑보다는 지리적·계통적인 관련성이 희박한 다른 언어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있다는 근거로서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던 서양어 논저의 인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3.2.3. 이승녕, 「조선어 이화작용에 대하여」

이 글은 19세기의 역사비교언어학과 20세기 프랑스 언어학 이론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으로 언어 사실을 취급한 것으로 평가된다.⁴²

이 글에서 인용된 선행연구 가운데 한국인 학자 신경준, 어윤적, 주시경, 박승빈 등은 ‘ㅇ’의 음가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면서 스치듯이 언급했을 따름이다. 이 인용은 뒤에서 살펴볼 「‘ㆍ’음고」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인 학자의 글은 오구라 신페이의 방언과 한국어 음성학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긴다이치 교스케의 『국어음운론』(國語音韻論)(1932)과 기쿠자와 스에오의 『국어음운론』(國語音韻論)(1935), 신무라 이즈루의 『언어학개론』(言語

39 황선엽(2024), 「〈어명(魚名)잡고〉의 이해」, 이병근 외 73인,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선구자: 회상, 학술활동, 논저의 이해』, 과주: 태학사, pp. 855-857.

40 李相信(2022), 「『震檀學報』와 국어학에서의 어휘론과 방언학의 정립」, 『震檀學報』 139, 震檀學會, pp. 205-224.

41 李崇寧(1935), pp. 144-145.

42 崔明玉(1988), pp. 241-243; 金한별(2022), p. 162.

學概論)(1935) 등 주로 개론서들이 인용되었다.⁴³ 오구라 신페이의 논저는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 가부를 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언 자료나 한국어의 음성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인용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양인 학자들의 논저 인용에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고바야시 히데오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파울(Hermann Paul)의 『언어사원리』(言語史原理,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와 방드리에스(Joseph Vendryes)의 『언어』(言語, *Le Langage*)는 그가 경성제국대학 시절에 고바야시의 지도하에 읽었던 것이다.⁴⁴ 서양어 논저를 원서가 아니라 일본어 번역본으로 인용한 것도 있다. 메이예(Antoine Meillet)의 『사적언어학(史的言語學)에 있어 비교(比較)의 방법(方法)』(*La méthode comparative en linguistique historique*)은 이즈이 히사노스케가 번역한 것,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음운학원론』(音韻學原論,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과 방드리에스의 「음운법칙(音韻法則)의 성찰(省察)」(*Réflexions sur les lois phonétiques*)은 고바야시 히데오가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인용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음운법칙의 개념과 이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방드리에스의 「음운법칙의 성찰」을 여러 번 인용하고 있다. 「음운법칙의 성찰」은 『메이예 기념논총』(*Mélanges linguistiques offerts à M. Antoine Meillet par ses élèves*) (1902)에 실린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론서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녕이 이 글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고바야시의 번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43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류로 생각되는 내용도 인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승녕은 기쿠자와의 책에서 나라시데 ‘K~K)S~K’ 이화작용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인용하였다.

kokoda(許多)>sokoda / kokibaku(若干)>sokidaku 等

그러나 ‘ko’와 ‘so’는 일본어에서 화자 근칭과 청자 근칭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이것은 이화가 아니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지시사(demonstrative) 범주에 속하는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대의 일본어 역사사전에도 ‘kokora-sokora’ 등 유사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そこばく」, 『日本國語大辭典』).

44 심악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 편(2011), pp. 365-366.

재인용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이 논문의 16쪽에서 인용된 볼프(Oskar Wolf)의 『언어(言語)와 청취(聽取)』(*Sprache und Ohr*)는 오늘날에도 잘 알려진 책은 아닌데, 스스로 언급했듯이 에스페르센(Otto Jespersen)의 『음운교과서』(音韻教科書, *Lehrbuch der phonetic*)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한편 브루크만(Karl Brugmann)의 『음운적(音韻的) 이화작용(異化作用)의 본질(本質)』(*Das Wesen der lautliche Dissimilation*)은 직접 확인한 것 같지 않다. 6쪽의 인용된 부분에 실제 원제목과 달리 ‘Das Wesen der lautliche Dissimilation Leipzig’라고 되어 있는데 이승녕의 다른 인용 부분에서 출판지가 적혀 있는 경우는 없고, 방드리에스의 『언어』에 “K. Brugmann, *Das Wesen der lautliche Dissimilation*, Leipzig(1909)”(75쪽 각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⁵

이 글에 인용된 선행연구는 국내와 국외 가릴 것 없이 어떤 현상이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어의 음성적 특징이나 방언에 대해서는 오구라 신피이의 논저가 많이 인용되었다. 이화가 동화의 역이라는 견해에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화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여러 설명을 절충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서양의 선행연구 인용에서는 고바야시 히데오의 영향력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45 실제로 원문을 확인한 것인지 불명확한 것도 있다. 이 글에서 인용된 외국어 논저는 원어 제목과 함께 쪽수를 병기한 경우가 많은데, 세 번 인용된 그라몽(Maurice Grammont)의 『이화작용』(*La dissimilation consonantique dans les langues indo-européennes et dans les langues romanes*)은 원어 제목도 쪽수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처음 인용될 때 “佛蘭西의 斯界의 大家 그라몽氏의 名著 『異化作用』(*Traite de phonétique* 1933 中에)”(6쪽)이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다. 분명 그라몽은 『음운학개설』(*Traité de phonétique*)의 제6장 ‘La Dissimilation’에서 70쪽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여 이화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그것은 저서의 일부이지 저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용될 때에는 쪽수 표시가 있지만(9쪽) 고바야시 히데오의 『언어학방법론고』(言語學方法論考)의 재인용이므로 여전히 원문을 확인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세 번째는 논저 제목이나 쪽수 표시 없이 “그라몽氏의 『異化作用은 强者의 法則이다』(*La dissimilation, c[']est la lois du plus fort*)”(18쪽)만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이화작용』의 186쪽에 나오는 말이기는 하다.

3.2.4. 이승녕, 「·음고」

이 글도 「조선어 이화작용에 대하여」와 마찬가지로 19세기의 역사비교 언어학과 20세기 프랑스 언어학 이론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으로 언어 사실을 취급한 것으로 평가된다.⁴⁶

그런데 이 글 제목에서 느껴지는 일본 언어학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한 바가 없는 듯하다. 「·음고」는 일본에서 서양의 언어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첫 번째 연구자로 일컬어지는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 1867-1937)의 「P음고」(P音考)(1898)를 떠올리게 한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일본어의 ㄱ(ha)행음(行音), 즉 현대의 [h]가 고대에는 [p]였다는 것이다. 우에다는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유명한 ‘그림의 법칙’(Grimm’s law)의 영향을 받아 ‘[p] > [ph] > [f] > [h]’와 같은 변화 과정을 설정하였는데, 후세에 서양 이론을 받아들여 근대적인 일본어음운사 연구의 길을 연 것으로 높이 평가받았다.⁴⁷

이후 우에다의 언어학자로서의 성취에 대해서는 재평가도 이루어지지만,⁴⁸ 우에다는 도쿄제국대학 교수로서 후지오카 가쓰지(藤岡勝二, 1872-1935), 신무라 이즈루, 하시모토 신키치(橋本進吉, 1882-1945)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냈고,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던 오구라 신포이 또한 우에다의 제자였다. 이승녕이 대학에 다니던 당시의 경성제국대학에서도 우에다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으리라 추정된다.⁴⁹ 이승녕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P

46 崔明玉(1988), pp. 241-243; 金한별(2022), p. 162.

47 中田祝夫編(1972), 『講座国語史 2: 音韻史・文字史』, 東京: 大修館書店, p. 49.

48 「P음고」의 주장과 근거가 이전 학자들의 글에서도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濱田敦(1952)에서 지적한 바 있다. 内田智子(2005)는 「P음고」에 대한 깊이 있는 언어학사적 탐색을 통해 종래 학설사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간행된 長田俊樹(2023)에서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イ・ヨンスク(1996)이나 山口謠司(2016)의 우에다에 대한 평가가 실증적이지 못함을 비판하고 그의 삶과 언어학 연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에다는 유럽의 역사비교언어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언어학자로서 프로라기보다는 아마추어라는 평을 내렸다.

49 우에다의 영향을 받아 가나자와 쇼자부로(日本文法論)(1903)에, 이하 후유(伊波普猷, 1876-1947)는 『古琉球』(1911)에 각각 「P음고」라는 글을 썼다. 오

음고」의 직간접적인 영향하에서 「‘、’음고」라는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닐까.⁵⁰

한국인의 견해는 이 글 제3절 「오음 제설의 개관」(○音 諸說의 概觀)에서 인용되는데, 신경준의 『훈민정음도해』(訓民正音圖解), 황윤석의 『이재유고』(履齋遺稿), 유희의 『언문지』(諺文志), 권정선의 『정음중훈』(正音宗訓), 어윤적의 『조선문자모강화』(朝鮮文字母講話), 주시경의 『조선어문전음학』(朝鮮語文典音學), 박승빈의 『조선어학강의요지』(朝鮮語學講義要旨),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등에 실린 ‘오’의 음가에 대한 견해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이어 ‘오’의 음가에 대한 오구라 신페이의 견해가 실린 『국어 및 조선어 발음개설』, 『남부조선의 방언』(南部朝鮮의 方言), 「조선어모음의 기호표기법에 대하여」(朝鮮語母音의 記號表記法に就いて) 가운데 『남부조선의 방언』을 들어 ‘아’와 ‘오’의 중간음이라는 그의 견해를 탁견(卓見)으로 칭하고 있다.

그 밖에 영문 논저로 이익습의 「The Alphabet(Panchul)」, 언더우드(Horace Underwood)의 『선영문법』(鮮英文法), 베어드(W. M. Baird)의 “Romanization of Korean Sounds”, 헐버트(Homer Hulbert)의 “Romanization again”을 들고, 언더우드와 헐버트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독문 논저로 가벨렌츠(George Gabelentz)의 『조선문자 및 음운기구론』(朝鮮文字及音韻機構論, *Zur Beurteilung des Koreanische Schrift und Lautwesen*), 뮐러(Friedrich Müller)의 『언어학원론』(言語學原論, *Grundriss der Sprachwissenschaft*), 불문 논저로 알레베크(Charles Alévêque)의 『법한주던』, 쿠랑(Maurice Courant)의 『조선문고』(朝鮮文庫, *Bibliographie coréenne*) 등을 인용하였으나 이 논저들의 ‘오’ 논의가 대체로 소략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빙’에 대한 설명은 정렬모의 「성음학상(聲音學上)으로 본 정음(正音)」, 마에마 교사쿠의 『한어통』과 오구라 신페이의 『국어 및 조선어 발음개설』, 『향가 및 이두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방언에서 ‘오 > 오’의 발달에 대해서

구라 신페이의 『국어 및 조선어를 위해』(國語及朝鮮語のため)(1920)의 제목 또한 우에다의 『국어를 위해』(國語のため)(1895, 1903)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50 ‘考’와 ‘攷’는 서로 통하는 글자이다.

는 오구라 신페이(新井)의 『남부조선의 방언』, 「함경남도 및 황해도의 방언」(咸鏡南道及び黃海道の方言), 『국어 및 조선어 발음개설』, 권덕규(權德圭)의 『조선어문경위』(朝鮮語文經緯) 등을 인용하였다. 「조선어 이화작용에 대하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구라의 논저는 대체로 방언 자료나 한국어 모음에 대한 음성학적 기술을 인용하는 데 쓰였다. 다만 뒤에서 오구라가 자신의 책에서 인용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繪)(1711)를 상당히 길게 재인용하면서 한국어의 문헌자료 및 표준어와 방언의 음성을 관찰한 결과 ‘ㅇ’의 음가를 ‘ㅏ ㅑ’의 간음(間音)’으로 추정한 오구라의 견해를 신설(新說)·탁설(卓說)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 밖에 제5절의 끝부분에서는 움라우트가 모음동화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버스(Eduard Sievers), 셰리(Wilhelm Scherer), 휘트니(William Whitney), 스위트(Henry Sweet) 등 구미의 언어학자들의 논저를 인용하였다. 이것들은 대체로 움라우트가 모음동화라는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어서 비판적인 견해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 글의 주제가 ‘ㅇ’에 대한 것인 만큼, 국내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었다. 이송녕의 인용은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과 비판이 글 전반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양 학자들의 논저를 언급한 부분이 보인다. 또한 이송녕이 언어학자로서의 오구라를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⁵¹ 그의 글에서 오구라를 인용한 부분을 보면 방언 자료나 음성학적 기술의 신뢰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51 “小倉 教授는 誠實하게 資料의 提示나 自己가 開拓한 것을 誇張없이 들고 나오는데 新味가 없고 羅列과 소개에 그친 感이 짙어 그의 講義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끝까지 文獻學的 테두리를 못 벗어난 느낌이었다. [...] 小倉 教授에게는 誠實한 態度만 높이 사야 할 것으로 믿었다. 정말 그의 《朝鮮語學史》나 《朝鮮語方言의 研究》上下권은 巨作이고 큰 개척이나 어디에도 변독이는 날카로움이나 才氣가 없었다.”심악이송녕전집 간행위원회 편 (2011), p. 363.

4. 근대 언어학 지식 수용의 두 갈래

4.1. 양주동의 경우

양주동은 어릴 때 한학을 배우고, 1920년 중등학교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뒤 1921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예과에서 불문학,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다.⁵² 김영배는 양주동이 영문법을 통해서 한국어 문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울러 박승빈(朴勝彬)의 『조선어학』(朝鮮語學)(1935) 등 당시의 문법서를 참고하여 『조선고가연구』의 문법체계를 수립하게 되었다고 추정하였는데,⁵³ 이 추정은 양주동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그가 비교하였듯이 『조선어학』과 『조선고가연구』의 품사 체계나 용어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다.⁵⁴

『조선어학』: 主格, 目的格, 副敍格, 所持格, 補語格, 呼格, 冠形詞形, 副詞形

『朝鮮古歌研究』: 主格, 目的格, 方位格, 持格, 敍述格, 呼格, 連體形, 連用形

격조사의 명칭은 비슷한 것이 꽤 있으나, 『조선어학』의 ‘관형사형’과 ‘부사형’에 대응하는 용어로 『조선고가연구』에서 ‘연체형’(連體形)과 ‘연용형’(連用形)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어 문법의 영향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현대의 어미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동)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서도 일문법의 영향을 느끼게 된다.⁵⁵ 이는 양주동이 영문학을 배

52 无涯先生古稀紀念論叢刊行會(1973), pp. 15-16.

53 金英培(1984), p. 6.

54 金英培(1984), pp. 4-5.

55 또 하나, ‘비취오시라’를 예로 들어 ‘ㄱ’ 약화를 설명한 부분을 들 수 있다. 그는 ‘ㄱ’ 약화에 대해 “ㄱ行諸語의 ㄱ이 모조리 默音化함”(119쪽)이라고 하였는데, ‘ㄱ’이라는 자음을 ‘ㄱ行’이라고 지칭한 것은 일본어에서 ‘k’라는 자음을 가리키기 위해 ‘カ(ka)行’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기 이전, 한문 외에 처음 배운 외국어가 일본어였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하기도 하다. 『조선어학』의 ‘소지격’(所持格)과 『조선고가연구』의 ‘지격’(持格)도 영향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쓰키 후미히코(大槻文彦)의 『겐카이』(言海)(1889)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어법지남」(語法指南)에 ‘genitive’의 번역어로 ‘지격’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이다.

한편 양주동의 머릿속에 있던 문법 체계가 영문법의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음은 「향가주석산고」(1939)의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는 根本的으로 朝鮮語에 있어서 純粹 形容詞는 名詞에 直接 冠用되는 「새」(新), 「외」(孤) 等 뿐이오 述語로 쓰이는 俗稱 形容詞 例컨댄 「붉·크」 等은 本原的으로 動詞라 主張한다. 例컨댄 「자(眠)·크(大)」 및 「먹(食)·붉(赤)」은 各히 「ㄴ·르·는·다」 等 諸助詞 우에서 用法에 何等 區別이 없으며, 다만 進行時相助動詞 「느」의 添加되는 與否가 問題이나 古語法에서는 그것도 絶對的 差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117쪽 주석 ㉠)⁵⁶

이 주석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양주동은 한국어의 형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명사에 선행하는 관형사나 접두사뿐이고 서술어로 쓰이는 것들은 본원적으로 동사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명사성 형용사가 우세한 유럽어, 특히 영어 문법을 습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이 동사성 형용사를 갖는 언어에는 적합한 설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⁵⁷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에 경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비슷한 인식을 갖는 연구자가 있는 것을 보면,⁵⁸ 영문과에서

56 이 내용은 『조선고가연구』 327쪽에 거의 그대로 반복되어 있다.

57 松本克己(2007), 『世界言語のなかの日本語: 日本語系統論の新たな地平』, 東京: 三省堂, p. 194.

58 목정수(2002),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배운 내용이 익숙했을 양주동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결국 양주동의 언어학 지식이 한정 내지 편향되었던 것은 그의 학문적 배경에 말미암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김완진의 다음과 같은 평가가 적절해 보인다.

원래 어학자가 아니었기에 자득한 내용에 ‘原始抽象名詞’니 ‘調音素’니 하는 기괴한 명칭을 부여하며 설명의 절차도 결코 어학적으로 세련된 것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언어사실에 대한 인식의 내용은 대체로 합당한 것이었고, 때로는 깊은 통찰력의 편린들을 번득이고 있는 것이다.⁵⁹

無涯에게 언어학적 수련을 쌓을 계제가 없었던 것을 탄식케 하는 구절들이다. [...] 다만, 이것을 가지고 無涯의 학문을 비평함에 너무 가혹해서 안되겠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음운변화에 관한 명확한 인식에 도달해 있지 못했다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야 하겠기 때문이다. 축적된 연구성과들 덕택에 우리는 선배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⁶⁰

4.2. 이승녕의 경우

이승녕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 영어와 독일어를 배웠고,⁶¹ 본과(법문학부 문학과 조선어학조선문학전공)에 진학한 후에는 언어학 전공 교수인 고바야시 히데오의 영향으로 인해 프랑스어까지 공부하게 되었다. 이승녕의 학문적 여정 초기에 고바야시가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던

『언어학』 31,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pp. 71-99.

59 金完鎭(1985), 「梁柱東」, 『국어연구의 발자취 (I)』(대학교양총서 17),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147.

60 金完鎭(1985), p. 150.

61 심악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 편(2011), p. 229.

것으로 보인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한 그는, 이승녕에게 외국어(영·불·독) 습득을 비롯하여 혹독한 학문적 훈련을 시켰다. 고바야시와의 만남을 통해 외국언어학 이론 습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아래의 일화에서 알 수 있다.⁶²

- 나는 대학 시절에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다. 그는 言語學의 小林英夫 조교수인데 [...] 우연한 기회에 나를 연구실로 불러 환담한 것이 다시없는 師弟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 “일본어로 된 책에서 읽을 거리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원서, 그것도 신간본을 상대로 해야 한다. 흔히 원지가 나온 지 3~4년 가서야 번역되는 것이 보통이거든. 시간을 다투는 학문의 세계에서 번역물을 상대로 하면 남에게 뒤지는 법이야 ….” / 小林 조교수의 이 같은 충고는 내 마음 깊숙이 아로새겨져 내 일생을 지배한 것이다.
- 小林 조교수는 나를 유망주로 본 모양이다. 매주 몇 차례 자기 연구실에 불러 놓고 독일의 새 논문을 읽고 토론케 하고 또 까다로운 문장가라 할 헤르만·파울의 《言語史原理》를 읽게 한 것이다.
- 그리하여 나는 그 덕분에 대학 2학년 때에는 영·독·불어 등 3개국어로 된 참고문헌을 다룰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난 셈이다.

고바야시의 영향으로 인해 서양 언어학 이론을 직접 습득하는 것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스스로가 첫 번째 정식 논문으로 여기는 「어명잡고」에서부터 서양의 서적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단순한 외국어의 역사적 용례를 제시하는 것이기는 했어도, 그는 한국어를 한국어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의 유사한 현상과 비교하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62 심악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 편(2011), pp. 241-243.

1931년에 간행된 책이 인용된 것은 서양의 언어학 지식을 동시대적으로 흡수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어 이화작용에 대하여」에서는 역사언어학에서의 ‘법칙’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화(異化)와 동음생략의 예를 들기 위해 서양과 일본 학자의 논저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에 대한 의문 제기나 다양한 견해를 절충하는 등 발전적으로 외국의 언어학 지식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ㄹ’음고」에서는 ‘ㄹ’의 음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문헌자료의 예를 중심으로 펼치는 것이 중심이었으므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외국의 논저는 대체로 옴라우트나 모음동화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진단학보』 초기 이승녕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국내 연구자의 견해가 대체로 비판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근대적인 언어학 성과가 축적되지 않았던 국내의 상황과 관련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일본 연구자 가운데 오구라 신페이의 한국어 음성학·방언에 대한 논저는 믿을 만한 자료로서 계속해서 인용된다는 점이다. 오구라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자료를 성실히 정리하는 성향이었기에, 그가 정리한 자료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다른 일본 연구자나 서양 연구자의 논저 인용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로서의 이론이나 외국어 자료에 대한 것이 많다.

이승녕은 일본어뿐만 아니라 고바야시의 혹독한 훈련하에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불·독어를 모두 읽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일부 서양 논저는 일본어 번역본, 특히 고바야시의 번역본을 참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그때까지도 그의 언어학 지식이 상당 부분 고바야시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서양의 언어학 서적을 섭렵하면서 습득한 지식을 옛 문헌과 방언 등의 한국어 자료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 보려고 애썼다. 『진단학보』에 실린 세 편의 글은 초창기의 것이기는 하나, 이후 한국어학계에서 서양의 언어학 이론(미국 중심이 되지만)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발전상을 예견하게 하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제까지 해방 이전 『진단학보』에 실린 양주동과 이송녕의 한국어학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당시 외국의 언어학 지식이 국내에 수용되는 양상을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근대의 한국어학이 태동하던 시기의 학문적 특징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양주동의 향가, 즉 고대한국어 연구는 주로 자신의 한학 소양과 영문학 연구 및 시작(詩作) 경험, 영문법과 일문법의 영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특히 향가 해독에 주력하면서 고증학적 방법을 핵심으로 삼았으며, 특히 오구라 신페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한편 본고에서는 양주동의 선행연구 인용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마에마 교사쿠의 한국어사 연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양의 언어학 이론을 직접적으로 도입하거나 적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언어 자료에 대한 그의 예리한 분석과 통찰력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이송녕은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서양의 최신 언어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습득했다. 그는 유럽의 역사비교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 등 당대의 주요한 학문적 흐름을 자신의 연구에 통합하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고바야시 히데오의 번역을 통해 서양 연구를 인용하는 등 고바야시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이송녕은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한국어의 음운사·어휘사·방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외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학문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결론적으로 초기 『진단학보』를 통해 본 한국어학 연구는 양주동으로 대표되는 고증학적이고 문헌 중심적인 접근과, 이송녕이 보여준 서양의 현

대 언어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을 수 있다. 두 사람의 상이한 학문적 경향은 당시 한국어학계가 외부의 지식을 받아들이며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구축해 나가던 과도기적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동시에 외국 학문의 영향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수립하고자 했던 고투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학문적 유산은 해방 이후 한국어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글에서 시도한 참고문헌에 대한 검토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 연구 대상을 해방 이후 『진단학보』와 당시의 다른 학술지로도 확장하면 연구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2003), 「양주동의 국어학 연구」,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pp. 5-49.
- 金完鎭(1985), 「梁柱東」, 『국어연구의 발자취 (I)』(대학교양총서 17),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31-164.
- 金英培(1984), 「國語學史上의 梁柱東」, 『論文集』 23, 동국대학교, pp. 1-18.
- 김태우(2021), 「20세기 전반기에 외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중세한국어 연구: 『龍歌故語箋』과 『Материалы по граммати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XV век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197-232.
- 金한별(2022), 「『진단학보』와 국어 음운론의 발전」, 『震檀學報』 139, 震檀學會, pp. 153-174.
- 金賢柱(2022), 「초기 국어문법론 탐구의 터전이 된 『진단학보』」, 『震檀學報』 139, 震檀學會, pp. 175-203.
- 東岳硏究會(1960), 『龍歌故語箋』, 私家版.
- 류준필(2013),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서울: 소명출판.
- 목정수(2002), 「한국어 관형사와 형용사 범주에 대한 연구: 체계적 품사론을 위하여」, 『언어학』 31,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pp. 71-99.
- 无涯生古稀紀念論叢刊行會(1973), 『梁柱東博士 프로필』, 서울: 探求堂.
- 朴勝彬(1935), 『朝鮮語學』, 京城: 朝鮮語學硏究會.
- 서민정(2016), 「한국어학에서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의 흔적과 영향 관계」, 『한국언

- 어문학』 99, 한국언어문학회, pp. 33-58.
- 서민정(2022), 「20C 전반기, 한국어학 학술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이승녕, 김수경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68, 우리말학회, pp. 161-185.
- 심악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 편(2011), 『心岳李崇寧全集 15: 삶과 사상』, 과주: 한국학술정보.
- 安禮柵(2022), 「20세기 국어학과 진단학회」, 『震檀學報』 139, 震檀學會, pp. 121-152.
- 梁柱東(1935), 「鄉歌의 解讀 特に願往生歌に就いて」, 『靑丘學叢』 19, 靑丘學會, pp. 1-45.
- 梁柱東(1939), 「鄉歌注釋散稿」, 『震檀學報』 10, 震檀學會, pp. 110-133.
- 李相信(2022), 「『震檀學報』와 국어학에서의 어휘론과 방언학의 정립」, 『震檀學報』 139, 震檀學會, pp. 205-224.
- 李崇寧(1935), 「魚名雜攷」, 『震檀學報』 2, 震檀學會, pp. 168-180.
- 李崇寧(1939a), 「音韻轉位 現象에 對하여」, 『한글』 7-4, 한글학회, pp. 1-6.
- 李崇寧(1939b), 「朝鮮語 異化作用에 對하여」, 『震檀學報』 11, 震檀學會, pp. 1-42.
- 李崇寧(1940), 「ㄱ、ㄴ音攷」, 『震檀學報』 12, 震檀學會, pp. 1-106.
- 李崇寧(1983), 「나의 研究生活」, 『나의 걸어온 길: 學術院 元老會員 回顧錄』, 대한민국학술원, pp. 443-493.
- 李珍吳(2004), 「心岳 李崇寧 선생의 學問 世界: 音韻論 分野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32(1), 韓國語文教育硏究會, pp. 495-521.
- 李賢熙(1993), 「前間恭作(1924), 『龍歌故語箋』」, 『周時經學報』 11, 周時經硏究所, pp. 107-119.
- 정승철(2004), 「음운사 연구에서의 언어 변화 이론의 수용과 전개: ‘ㅇ’의 음운사 연구를 중심으로」, 『國語學』 43, 국어학회, pp. 407-428.
- 震檀學會(1931), 「震檀學會創立」, 『震檀學報』 1, 震檀學會, pp. 223-224.
- 최경봉(2016),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서울: 일조각.
- 崔明玉(1988), 「歐美 言語學 理論의 受容과 國語音韻論 硏究: 構造言語學理論과 生成音韻論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9, 국어국문학회, pp. 235-256.
- 허인영(2024), 「『韓語通』 본문에 서술된 한국어사 관련 주제에 대하여」, 『어문논집』 101, 민족어문학회, pp. 259-292.
- 홍종욱·장문석·류준필(2025), 「한국 근대문헌 디지털 아카이브의 설계: 『진단학보』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110(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79-122.
- 황선엽(2024), 「〈어명(魚名)잡고〉의 이해」, 이병근 외 73인,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선구자: 회상, 학술활동, 논저의 이해』, 과주: 태학사, pp. 855-857.
- 黃湜江(1991), 「無涯 梁柱東과 『朝鮮古歌硏究』」,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양주동 연구』, 서울: 민음사, pp. 299-324.
- イ・コンスク(1996), 『『国語』という思想』, 東京: 岩波書店.
- 上田萬年(1898), 「P音考」, 『帝國文學』 4-1, 帝國文學會.
- 内田智子(2005), 「上田万年『P音考』の学史上の評価について」, 『名古屋大学国語国文学』

- 97, 名古屋大学国語国文学会, pp. 98-84.
- 大槻文彦(1889), 『語法指南』, 『言海』, 私家版.
- 長田俊樹(2023), 『上田万年再考: 日本言語学史の黎明』, 東京: ひつじ書房.
- 河野六郎(1942), 「前間先生と朝鮮語學」, 『書物同好會會報』 15, 書物同好會, pp. 9-11.
- 河野六郎(1974), 「故前間恭作先生の朝鮮語研究」,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 『前間恭作著作集 下巻』, 京都: 京都大學國文學會, pp. 5-8.
- 時枝誠記(2017), 『国語学史』, 東京: 岩波書店.
- 中田祝夫編(1972), 『講座国語史 2: 音韻史・文字史』, 東京: 大修館書店.
- 濱田敦(1952), 「明治以降に於ける国語音韻史の研究」, 『国語学』 10, 国語学会, pp. 2-12.
- 松本克己(2007), 『世界言語のなかの日本語: 日本語系統論の新たな地平』, 東京: 三省堂.
- 山口諡司(2016), 『日本語を作った男: 上田万年とその時代』, 東京: 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 ワンドリエス 著・小林英夫 訳(1933), 「音韻法則の省察」, 『方言』 3-10, 東京: 春陽堂.

원고 접수일: 2025년 5월 8일, 심사완료일: 2025년 5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5월 27일

ABSTRACT

The Acceptance of Linguistic Knowledge as Seen Through the Early Papers of Two Scholars in *Chin-Tan Hakpo*

Heo, Inyeong*

This study analyzes references in early Korean linguistics articles from the 1930s *Chin-Tan Hakpo*, focusing on Yang Ju-dong and Yi Soong-Yeng, to explore the reception of foreign linguistic knowledge and features of early modern Korean linguistic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Yang Ju-dong adopted a philological approach, primarily in Hyangga studies, critically using Japanese scholarship and classical Korean texts, and direct Western theoretical influence was found to be limited. Conversely, Yi Soong-Yeng, influenced by Kobayashi Hideo, directly engaged with and applied contemporary Western theories like historical-comparative linguistics and structuralism to Korean language analysis, referencing original Western sources. The research thereby identifies two main streams of knowledge adoption: Yang's traditional philology and Yi's proactive integration of Western theories. This highlights the diverse paths taken in establishing modern Korean linguistics during a restrictive era, reflecting efforts to develop Korean studies amidst challenging circumstanc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ha University

Keywords *Chin-Tan Hakpo*, Digital Archive, Yang Ju-dong, Yi Soong-Yeng, Maema Kyosaku, Ogura Shinpei, Kobayashi Hideo, Korean Linguistics, Structuralism, Historical Linguistics